



4·3수형생존인 2차 재심 본격화

8명 재심청구전 만남
“고문 후유증에도 시달려”
4·3도민연대 내달 중순
지법에 재심청구서 제출

자신에게 씌어진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 재판에 나설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처음으로 만나 오랜 세월 숨겨왔던 억울함을 풀어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지난 27일 도민연대 사무실에서 ‘4·3수형생존인 2차 재심 청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형생존인 8명 가운데 장병식(89) 할아버지와 김두환(91) 할아버지가 참석했으며, 김묘생(91) 할머니 등 6명은 병환 등으로 가족이 대신 자리를 채웠다. 수형생활을 한 기간은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다.

이들은 제주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붙잡힌 뒤 모진 고문을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해야만 했다. 혐의는 ‘내란죄’ 혹은 ‘국방경비법 위반’인데, 형량도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듣는 등 엉터리로 재판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서 제주로 온 장병식 할아버지는 “고문으로 인해 허리를 심하게 다쳐 사흘



내달 재심 재판에 나설 4·3수형생존인들이 27일 4·3도민연대에서 회의를 하고있다. 송은범기자

간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터로 끌려 갔다”며 “조금 있더니 ‘다 끝났다’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에는 배에 태워져 목포를 거쳐 인천형무소로 보내졌다. 형량도 인천에 도착해서야 금고 1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고문 후유증으로 허리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의사도 ‘너무 험악해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재심 재판을 결심하면서 수술을 감행, 다행히 경과가 좋아 제주에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본보와 인터뷰를 했던 김두환 할아버지는 “1948년 마을사람의 모함으로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은 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며 “이후에도 마을에서 폭도라고 멸시를 당한 것은 물론 자식들도 연좌제로 인해 수없이 경찰서에 끌려다녀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15~18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으로는 1차 재심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양동운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1차 재심 재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짧게는 1년, 늦어도 1년 6개월 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매달 6명꼴 교통사고로 숨져 올 1~9월 53명… ‘차 대 사람’ 사고 절반

제주에서 매달 6명꼴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2대 중과실’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명이 늘어난 것이며, 특히 올해 9월에는 사망자가 6명으로 집중됐다.

사망사고 유형은 ‘차 대 사람’이 25명(47.2%)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차 대 차’ 16명(30.2%), ‘차량단독’ 12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12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30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본격적인 감폭 수확철을 맞아 시외곽 지역의 보행자,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교통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김기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물론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 보행자는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제주 외곽부로는 야간에 많이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도로환경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82명 가운데 37명(45.1%)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실 유형을 살펴보면 무면허 11명, 과속 8명, 신호위반 6명, 중앙선 침범 6명,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4명, 음주 2명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함께 걸으며 제주 가을 만끽하는 사람들 ‘혼디걸으며고치기’ 걷기행사가 28일 도민과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을 출발해 매봉까지 6km 구간에서 열렸다. 이상국기자

제주, 아동학대 신고 ↑·송치 ↓

학대신고 2016년 191건
지난해 291건으로 급증
검찰 송치율 38%→37%

제주에서 아동학대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아동학대 112신고는 2016년 191건, 2017년 240건, 2018년 2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 사이 증가율이 52.4%로 충남(78%), 충북(54.6%)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에서는 30대 계모가 5살남 의붓아들을 학대에 사망케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 계모는 아동학대치사

추자도서 관광객 실종

추자도 해안에서 70대 여성 관광객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55분쯤 상추자도 서쪽 해안에서 남편과 함께 해산물을 채취하던 관광객 김모(72)씨가 실종됐다. 현장에는 채취 작업도구와 휴대폰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1척, 민간구조선 4척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송은범기자

관광버스 도랑에 빠져

27일 오후 4시2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명도암 인근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도로 옆 도랑으로 빠졌다.

이 사고로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으나 운전자 A(50)씨를 제외한 승객 21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및 탑승객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4·3이라는 숫자 버려야 ‘正名’ 가능”

4·3연구소 30주년 세미나

제주4·3의 ‘정명’을 짓기 위해 이제는 ‘4·3’이라는 숫자를 놓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3이라는 숫자가 1948년 4월 3일 이전 제주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과 그 맥락을 가려 버리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4·3연구소는 지난 27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4·3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억과 비원 속의 4·3, 정명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김영범 대구대학교 교수는 “4·3이라는 기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당시 미국은 제주를 군

사지기와 하려는 탐욕을 보였고 이승만도 선선히 넘겨줄 의사를 내보였지만 그 기도는 결국 좌절됐다”며 “항쟁의 열화 같은 기세, 놀라움 만큼의 도민 결속력, 고립무원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가는 저항의 지속성… 비록 ‘빨갱이 섬’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무수한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데 마침내 성공한 것”이라고 제주4·3을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인은 이 성공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면서 “승자가 된 반공국가의 독한 질타에 끝모를 패배감과 허무감, 바닥없는 자기모멸과 열등의식에 갇힌 채 어디서도 발설 못하고 내색조차 금기여서 가슴 속에 담아만 놓는 ‘로컬기억’으

로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4·3이라는 숫자는 1948년 4월 3일 이전 있었던 일들과 맥락을 가리고 있다”며 “3·1발포사건으로 비롯된 제주민의 민족자결 독립의 숨결과 기운, 미군정통치 전면 거부 3·10총파업, 전면탄압이라는 대결구도로 생긴 ‘제주자위항쟁’, 억압이 제주민 말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깨닫고 제주만의 자립·자존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해방과 독립의 항쟁이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항쟁은 완전한 민족항쟁만 아니라 제주독립의 의미도 내재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주 독립항쟁’이라고 해야한다며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제2의 민족독립운동 >육지부의 강권침탈자들에 맞선 대(對) 중심부 항쟁 >고립된 채 죽음을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벌여간 대미항쟁을 ‘제주 독립항쟁’이 내포한 3가지 의미라고 소개했다. 송은범기자



第31回 晉瀛詞 大祭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 案内

오곡이 영글어 가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종친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시조(諱 以式)님과 충정공파·염동악파·정랑공파 入島三先祖님을 모시고 『2019년도 진영사 대제 봉행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현종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선조님의 음덕(陰德)을 기리며 일가간의 정겨운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일시 :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 제1부 : 진영사 대제 봉행 (10시)
 - 제2부 : 정기총회 (11시)
- ◆ 장소 : 진영사(제주시 아연로 41)

※ 개별통지를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고 참석 바랍니다.

◆ 연락처: 제주도총회중무국장 동범 ☎ 010-3693-3234
충정공파종친회장 명철 ☎ 010-3380-4917
염동악파종친회장 만희 ☎ 010-3691-9952
정랑공파문중회장 길현 ☎ 010-3696-9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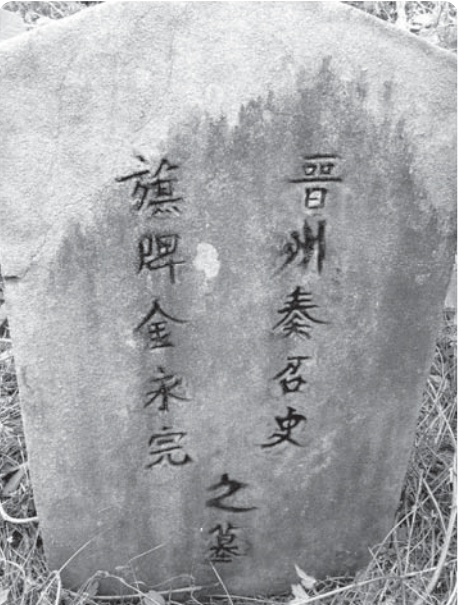
晉州姜氏 濟州道宗會

會長 姜元熙

분묘 연고자를 찾습니다.

본 분묘 소재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531번지



본 분묘(쌍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분께서는 토지주나 인근 마을리사무소, 행정기관 (서귀포시청, 안덕면사무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8664-6567

앵배추브로컬리 무우 앵파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 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 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 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말친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탕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